

0-36 자연주기의 다낭성난소증후군 환자로부터 채취한 미성숙난자의 임상적 응용

포천중문의과대학교 차병원 여성의학연구소

한세열 · 정형민 · 최동희 · 엄기봉 · 정미경 · 김승범
심상우 · 노민경 · 윤태기 · 차광렬

본 연구는 다낭성난소증후군 환자로부터 자연주기에 채취한 미성숙난자의 임상적 응용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하였다. 1995년 3월부터 1999년 7월까지 총 94명 130 cycle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들 환자의 평균연령은 30.6세, 불임기간은 5.7년이었다. 미성숙난자의 채취는 생리주기가 있는 경우 약 10~13일경에 생리가 없는 환자의 경우 소퇴성출혈을 유도한 다음 9~13일경에 채취하였다. 자궁내막의 증식을 위해 난자채취 당일부터 estradiol valerate 4 mg을 경구투여 하였으며 난자채취 후 48시간째부터는 progesterone 100 mg을 근주하였다. 배아이식 후 12~14일경에 혈중 beta-HCG를 측정하여 임신여부를 확인하였으며 임신시에는 estradiol valerate와 progesterone을 임신 12주까지 투여하였다. 총 1973개의 미성숙난자가 채취되어 평균 채취난자수는 15.2개였고 이 중 1699개 (86.1%)가 형태학적으로 정상난자로 판정되어 체외성숙을 유도한 결과 1062개 (62.5%)가 제1극체의 방출이 이루어졌으며 이를 ICSI한 결과 77.0%인 818개의 난자가 수정되었다. 수정된 난자중 ZIFT와 동결보존을 실시하고 남은 500개의 배아를 배양하여 453개 (90.6%)의 배아가 적어도 2세포기 이상으로 난할이 이루어졌다. 총 121 cycle (93.1%)에서 배아이식이 가능하였으며 평균 5.1개의 배아가 이식되었다. 총 30 cycle에서 임신에 성공하여 배아이식당 임신율은 24.8%이었다. 한편, 130 cycle의 임상결과를 배아이식방법에 따라 조사하였을 때 자궁내 배아이식을 실시한 경우 임신율은 18.6% (11/59)인데 반해 ZIFT와 자궁내 배아이식을 병행한 경우 임신율은 35.2% (19/54)로서 의미있게 높은 임신율을 나타내었다. 그러나 ZIFT만을 실시한 경우는 임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(0/8). 환자의 생리주기가 규칙적이었던 경우 30.8% (4/13)와 생리주기가 불규칙하거나 없었던 경우는 24.1% (26/108)로서 통계적 차이는 인정되지 않았다. 임신이 확인되었던 30례중에서 현재까지 23명의 아기가 출생하였으며 자궁외 임신 1례, 자연유산 9례 그리고 2례는 임신 중에 있다. 이상의 결과를 미루어 볼 때 다낭성난소증후군 환자로부터 자연주기에 미성숙난자를 채취하여 이를 체외배양을 통해 성공적인 임신과 분만이 가능함을 확인하였으며 이러한 방법은 다른 불임환자들에게도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.

0-37 유리화 난자동결법에 의한 임신과 분만

포천중문의과대학교 차병원 여성의학연구소

정형민 · 윤태기 · 홍승욱 · 임정묵 · 최동희 · 한세열 · 엄기봉
박은아 · 김승범 · 고정재 · 차광렬

난자동결보존은 배아동결보존이 안고있는 윤리적, 법적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뿐만 아니라 시험관아기의 적용범위를 범위를 넓힐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고 있다. 이에 본 연구는 저자 등은 1998년도에 보고한 유리화 동결법을 이용하여 이의 임신